

1997년에 설립한 AMI Semiconductor는 CMOS기반의 Active-Pixel Array 전문회사이다. CCD용 CMOS 이미지 센서로 시장 점유율을 높여가며 특히 프린팅 이미지 분야에 연구, 개발을 확대하고 있는 이 회사는 2004년 12월에 Flextronics를 인수함으로써 HP, 캐논 등 단단한 글로벌 고객사를 확보하는데 성공했다.

이미지 센서는 회사 전체 매출의 약 60%를 차지하며 응용 분야로는 스캐너, 프린팅, 컨수머 제품 등이다. 특히 컨수머 제품용으로는 최근에 2D트래킹 센서를 광 마우스에 적용시키고 있으며 지문 인쇄용 모듈 비즈니스도 한창 활기를 띠고 있다. 기존의 2D 지문 인식 시스템 솔루션 비용을 절감시킨 광 처리 기술은 업계 최초로 손꼽힌다. 속도와 인쇄 위치의 변경을 감지하는 Micro Dot 인식 기술도 업계의 환영을 받고 있어서 시장 확대가 예상된다. 즉, 프린터의 인쇄지에 뿌려지는 잉크의 분사량을 일정하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위패 감식기용 CMOS 이미지 센서 모듈은 이미 한국에 3곳의 고객사를 확보하고 있다. 투표용 터치 스크린의 수요 증가에 힘입어 한국의 ATM 시장에 진출한 이 회사는 가격과 노이즈를 줄이는 디지털 복사기 시장에도 발을 넓히고 있으며 제록스, 리코 등에 제품을 공급 중이다.

마약 탐지 및 마약 복용 테스트 등에 PDA가 사용됨에 따라 생명 과학의 기술이라고 할 고기능 Liquid Chromotology의 상용화에도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 이는 빛 광원을 화학적으로 흡수함으로써 빠른 테스트를 가능케 하는 기술이다.

비즈니스 관리 담당 이사 에릭 웡(Eric Wong)에 의하면 AMI는 200~400dpi급 CMOS 이미지 센서 모듈 시장의 약 35퍼센트의 시장 점유율을 갖고 있다. 그는 일본과 미국을 주 시장으로 한 사무 기기용 고속 600dpi 센서의 개발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유럽과 아시아를 대상으로 한 저가용 1,200dpi칩도 곧 출시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600dpi급 센서와 모듈 시장에서는 도시바에 이어(작년 기준) 약 25%의 시장 점유율로 업계 2위의 위치를 차지했다. 최근에 HP, 캐논, 렉스

AMI, 이미지 센서의 강자가 될립니다

이미지 센서는 회사 전체 매출의 약 60%를 차지하며 응용 분야로는 스캐너, 프린팅, 컨수머 제품 등이다. 특히 컨수머 제품용으로는 최근에 2D트래킹 센서를 광 마우스에 적용시키고 있으며 지문 인쇄용 모듈 비즈니스도 한창 활기를 띠고 있다.



Eric Wong 비즈니스 관리담당 이사

마 등을 주 고객사로 확보함에 따라 올해에는 점유율을 30%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현재는 모두 Standard CMOS기반의 제품만을 내놓고 있지만 Non-Standard 기술로도 개발을 계속하고 있어 조만간 출시할 예정이다. 2,400dpi급의 센서를 업계에서 유일하게 제공하는 이 회사는 2~3년 내로 고가용 2,400dpi용 센서를 Non-Standard 기술로 대체한다는 야심찬 비전을 가지고 있다.

광센서 부문에서도 포토 다이오드 2개를 사용하는 기술로 시장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2002년에 인텔이 에너지 절감의 목적으로 시도한 적이 있는 이 기술은 포토 다이오드로 적외선과 UV를 모두 감지하는 것으로 인간의 눈이 반응하는 정도와 아주 유사한 특징을 지닌다.

자동차의 헤드램프, 백미러, 대쉬 보드 뿐만 아니라 PDA, 휴대폰, LCD 모니터, GPS 모니터, TV 스크린에 광범위하게 적용되는 이 센서는 사용자가 직접 감지 정도를 선택할 수 있게 하는 장점도 제공한다. 데이터 스위트와 각종 마케팅 자료는 올 2사분기 중에, 샘플은 2사분기 말에 발표할 예정이다. **SM**